### 기본 문제

### 고1 | 국어

### 9.우리말 우리글 사랑하기

### 족보닷컴 zocbo.com

### 9-1.국어의 어제와 오늘(01)\_미래엔(신유식)

###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u>나·랏:말썃미⑤中每國·국·에</u>달·아文문字·중·와·로서르〈뭇·디아·니훌·씨·이런젼·ᄎ·로어·린百·빅姓·셩·이니르·고·져<u>○홍·배</u>이·셔·도무·춤:내제<u>②. ᄠ·들</u>시·러펴·디:몯홇·노·미하·니·라·내·이·룰爲·윙·호·야<u>②:어엿·비</u>너·겨·새·로·스·믈여·듧字·중·룰밍·フ노·니:사룸:마·다:히뼈:수·비<u>◎니·겨</u>·날·로·뿌·메便뼛安한·킈호·고·져훓뜻릇·미니·라

- <세종어제훈민정음>

(나) 海東(해동)六龍(육룡)·이③<u>노른·샤</u>:일:마다天福(천복)·이시·니⑤古聖(고성)·이同符(동부)· 호시·니

- <용비어천가>, 제1장

(다) <u>ⓒ불·휘</u>기·픈<u>@남· 군</u> 박 루·매아·니<u>@:뮐·씨</u>곶:됴·코여· 름·하노·니

시·미기·픈(<u>)· ㅁ·른</u>· ㄱ 민·래아·니그·출·씨:내·히이·러바·루· 래·가누·니

- <용비어천가>, 제2장

- (가)에서 구개음화 현상이 15세기에는 아직 일어 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뭋·디
- ② 전· 첫·로
- ③ 니르·고·져
- ④ 만춤:내
- ⑤ 한고·져
- **2.** (가)에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의 특징을 보여 주는 사례로 가장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① 國·귁
- ②字.5
- ③ 百·빅
- ④ 便뼌
- ⑤ 安한

### 3. ⓐ~①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 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주체를 높이는 어미가 나타나고 있다.
- ② ⑤ :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는 주격 조사 '이'가 쓰였다.
- ③ ⓒ : 주격 조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 ④ ① : ①와 비교하여 보면 모음 조화가 대체로 잘 지켜 졌음을 알 수 있다.
- ⑤ @ :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ㄹ씨'가 사용되었다.

# **4.** (가)의 '<u>나</u>·랏:말쌋·미</u>'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모음이 나타난다.
- ② 현대 국어와는 다른 형태의 주격 조사가 쓰였다.
- ③ 현대 국어와는 다른 형태의 관형격 조사가 쓰였다.
- ④ 앞말의 종성을 뒷말의 초성에 옮겨 적는 연철 표기가 적용되었다.
- 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의미가 축소된 어휘의 사례를 확 인 할 수 있다.

# **5.** ⑦~⑩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① ③ : 현대 국어와는 다른 형태의 비교 부사격 조사가 사용되었군.
- ② ① :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주격 조사가 특정 환경에 서 생략되기도 했군.
- ③ © : 현대 국어와 달리 음절 첫머리에 둘 이상의 자음 이 올 수 있겠군.
- ④ ② : 현대 국어에서는 어휘의 의미가 이동한 사례로 볼수 있군.
- ⑤ 回: 현대 국어와 달리 글자의 첫소리가 발음할 때 제약을 받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군.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불휘 기픈 남군 보르매 아니 **뮐씨** 곶 됴코 여름 하느니

시미 기픈 므른 フ모래 아니 그츨씨 **내히** 이러 바루래 가누니

- 용비어천가

(나) 나라히 파망(破亡) 한니 외콰 기름뿐 잇고,

잣 안 보미 플와 **나모뿐 기펫도다**.

時節(시절)을 感歎(감탄)호니 고지 눉므를 쓰리게코,

여희여슈물 슬후니 새 모속물 놀래는다.

烽火(봉화) | 석 도를 니서시니,

지븻 音書(음서)는 萬金(만금)이 소도다.

셴 머리를 글구니 또 뎌르니,

다 빈혀를 이긔디 몯홀 둧호도다.

- 두보, '춘망'

(다) 일조(一朝) 낭군(郎君)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頓 絶)하야

자네 일정 못 오던가 무삼 일로 아니 오더냐

이 아해야 말 듣소

황혼 저문 날에 개가 짖어 못 오는가

이 아해야 말 듣소

춘수(春水)가 만사택(滿四澤)하니 물이 깊어 못 오던가

이 아해야 말 듣소

하운(夏雲)이 다기봉(多奇峰)하니 산이 높아 못 오던가

이 아해야 말 듣소

한 곳을 들어가니 육관대사 성진(性眞)이는 석교상(石 橋上)에서 팔선녀 다리고 희롱한다

지어자 좋을시고

병풍에 그린 황계(黃鷄) 수탉이 두 나래 둥덩 치고 짜 른 목을 길게 빼어 긴 목을 에후리어

사경일점(四更一點)에 날 새라고 꼬꾀요 울거든 오라는가 자네 어이 그리하야 아니 오던고

너란 죽어 황하수(黃河水)되고 날란 죽어 도대선(都大船)되야

밤이나 낮이나 낮이나 밤이나

바람 불고 물결치는 대로 어하 등덩실 떠서 노자 저 달아 보느냐 임 계신 데 명휘(明輝)를 빌리려문 나도 보게

이 아해야 말 듣소

추월(秋月)이 양명휘(揚明輝)하니 달이 밝아 못 오던가 어데를 가고서 네 아니 오더냐

지어자 좋을시고

- 작자 미상, '황계사'

# **6.** (나)의 중세 국어 자료에 나타나는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또'를 보니 음절의 초성에서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사용되었군.
- ② ' $\Delta$ ', ' $\cdot$ ' 등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문자가 사용되었군.
- ③ '도를'에서 양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것을 보니 모음 조화가 사용되었군.
- ④ '플'과 '눉므를'에서 순음 'ㅁ', 'ㅍ'의 뒤에 'ᅮ'가 오지 않은 것을 보니 원순 모음화가 사용되었군.
- ⑤ '이긔디'에서 'ㅣ' 앞의 'ㄷ'이 'ㅈ'으로 변하지 않은 것을 보니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군.

# **7.** (가)와 (나)는 중세 국어 자료이다. 이와 관련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남군'과 (나)의 '나모뿐'의 체언의 의미는 같다.
- ② (가)의 '뮐씨'와 (나)의 '기펫도다'는 현대 국어에서 사라 진 어휘이다.
- ③ (가)의 '내히'와 (나)의 '뫼콰'의 체언은 조사 '이', '과' 와 결합할 때 'ㅎ'이 덧붙는다.
- ④ (나)의 '보민'는 양성 모음으로 끝나는 무정명사이므로 관형격 조사 '인'와 결합하였다.
- ⑤ (가)의 '시미', (나)의 '새', '烽火(봉화) l '의 문장 성분은 동일하나 조사의 형태는 모두 다르다.

### **8.**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①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시적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고전 소설 등 다른 문학 작품을 인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하여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임이 못 오는 상황을 계절적 배경과 함께 제시하여 시 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임과의 재회를 방해하는 소재인 달에게 임 계신 데 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 9. 〈보기〉는 시인이 (나)를 지은 지 3년 후 지었다고 알려져 있다. 두 시 <u>모두</u> 작가 자신을 시적 화자로 두었을 경우, 이를 참고로 하여 작품을 감상한 내용 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물군 구룺 훈 고비 무술홀 아나 흐르누니 긴 녀룺 江村(강촌)에 일마다 幽深(유심)호도다 절로 가며 절로 오누닌 집우휫 져비오. 서르 親(친)호며 서르 갓갑누닌 믌 가온딧 골며기로다. 늘근 겨지븐 죠히를 그려 쟝긔파놀 밍골어놀, 져믄 아도른 바노를 두드려 고기 낫골 낙술 밍구누다. 한 病(병)에 얻고져 호논 바눈 오직 藥物(약물)이니. 져구맛 모미 이 밧긔 다시 므스글 求(구)호리오.

-두보, '강촌'

- ① 세속적 부귀를 좇던 화자는 강촌에 내려와서 많은 병에 약을 구하고 있다.
- ② 전쟁으로 가족의 소식을 듣기 힘들어 했던 화자가 드디어 아내와 아들을 만났군.
- ③ (나)와 다르게 <보기>는 자연과의 조응을 통해 삶의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군.
- ④ 작가는 두 시 모두에서 계절적 배경을 밝히고 외경 묘 사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였군.
- ⑤ 폐허가 된 장안의 모습에서 나라 걱정에 시름하던 화자는 그윽한 정취를 풍기는 강촌에 기거하고 있군.

# 10. 밑줄 그은 말에 쓰인 조사를 지적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大王(대왕)하 호격 조사
- ② 音은 소리니 서술격 조사
- ③ 이 <u>그</u>슴 <u>相(상)</u>고 의문 보조사
- ④ 훈 龍(용)을 지스니 머리 열히러니 주격 조사
- ⑤ 입시울와 혀와 엄과 니왜 다 됴흐며 부사격 조사

# **11.** 최근 가상공간의 신조어가 대중 매체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 (1)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과 반대 중 선택하여 완전한 문장(나는 ○○에 ○○한다)으로 서술하고
- (2) <보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한가지 찾아서 쓰시오.

### <보기>

지난 10월 9일 한글날을 지내며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는 예능 자막 사용을 둘러싼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한쪽은 예능 자막의 한글 파괴현상이 너무 심각하다는 지적이었고, 다른 한쪽은 하나의 유행일 뿐 한글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는다는 반박이었다. 과연 어느쪽 손을 들어줘야 할까.

요즘 젊은 층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 하나는 '역대급'이다. '역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대단하다'는 의미의 이 단어는 어법에 맞지 않는 신조어다. 하지만 예능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은 스스럼없이 "역대급이다"라고 외치고 이 표현은 여과 없이 자막으로 붙는다.

심지어 뉴스에서도 쓰인다. 올해 여름 태풍이 한반도를 덮쳤을 때 지상파 뉴스에서 '역대급 태풍' '역대급 피해'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적잖이 볼 수 있었다. MBC '뉴스데스크'도 날씨를 소개하며 "역대급 7월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라고 리포팅한 바 있다.

이런 한글 파괴는 예능으로 가면 더 심각해진다.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10대들이 사용한다는 소위 '급식체'는예능 자막의 단골손님이다. '띵곡', '커엽'은 각각 '명곡'과 '귀엽'이라는 의미다. 두 글자의 모양이 비슷하다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급식체다.

급식체의 또 다른 형태는 줄임말이다. '마상', '아아', '세젤예', '할많하않'은 무슨 뜻일까? 각각 '마음의 상처', '아이스 아메리카노', '세상에서 제일 예쁜',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를 줄여서 쓴 표현이다. 실제로 10대를 포함한 젊은 세대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으며 이해하지 못하면 시대에 뒤처졌다는 평을 받는다. 포털 사이트에서 급식체를 검색하면 급식체의 뜻을 맞히는 퀴즈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학부모나 교사들이 10대들의 대화법을 이해하기 위해 급식체를 '공부'하는 지경이다.

또 다른 형태는 한글 영어 숫자 등을 섞어서 만든 외계어다. 'A' 그렇구나', '사다다이는 울지 ໄ 않이다', '자신있 G1' 등은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읽을 수 있다. 각각 '아 그렇구나', '사나이는 울지 않아', '자신 있지'로 읽힌다.

모든 세대에게는 그들만의 문법이 존재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어 습관이 한글 파괴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반응도 있다. 하지만 이를 방송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방송법 제6조 8항은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 3항에는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및 비속어, 은어, 유행어, 조어, 반말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다. 결국 방송사들이 대중의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재미를 유발한다는 미명 아래 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공영방송 KBS도 예능 자막의 한글 파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 방송 관계자는 "과거에는 방송이 정도를 지켰다. 아무리 시청자의 흥미를 끌겠다는 목적이 있어도 표준어 사용을 절대적으로 준수했다"며 "시대가 바뀌고 재미를 더 앞선 가치로 삼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하더라도, 최근 예능 자막의 한글 파괴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인터넷의 발달, 스마트폰의 보급. 다채널 등의 영향으로 느긋이 기다리는 문화가 사라져 간다. 예능 프로그램도 조금이라도 재미가 없으면 곧바로 채널이 돌아간다. 쉽게 싫증을 느끼는 시청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예능 PD가 꺼낸 무기가 바로 자막이다. 화면 속 등장인물이 아무말도 하지 않아도 자막은 끊임없이 붙는다. 마치 만화책처럼 자막이 출연진의 얼굴을 덮어버리기도 한다.

외계어나 급식체의 줄임말은 좁은 화면 안에 많은 의미를 담아야 하는 예능 자막에 적합한 형태라 할 수 있다. 한 지상파 예능국 PD는 "한 명의 출연자가 다른 한 명을 나무라서 토라졌을 때 '마상'이라는 딱 두 글자만 붙여주면 의미가 통한다."며 "줄임말은 경제적인 표현인 동시에 예능을 즐기는 10~20대들이 '그들만의 재미'를 추구하는 방식이라 그에 발맞춰 자막을 붙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예능 자막을 너무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입장도 있다. 과거에도 유행어는 많았다. '캡', '따봉', '웬열' 등은 1990년대 전후 신세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표현이었다. 당시 기성세대들도 이런 표현을 쓰는 젊은 층을 보며 혀를 끌끌 찼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한글파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결국 한때의 재미로 사용하는 표현일 뿐, 한글 자체를 훼손시키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시대의 흐름을 이해해달라는 주문도 있다. 다채널 다매체 시대가 되면서 예능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미스트롯' '불후의 명곡'처럼 10~20대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예능이 있다. 그리고 급식체, 외계어를 사용한 자막은 주로 후자에 달린다.

또 다른 예능국 PD는 "모든 예능 프로그램 속 자막이 변형된 한글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각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춰 제작진이 유연하게 이를 붙인다"며 "각 예능을 찾는 시청자들의 니즈에 맞춰 트렌디한 자막을 붙여 재미를 부여하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 일요신문 2019.10.27

# **12.** <보기>의 밑줄 친 선생님의 마지막 물음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학생: 선생님, 현대에는 많이 약해진 것으로 알려진 '모음 조화'가 중세 국어에서는 잘 지켜졌나요?

선생님: 중세 국어 시기에는 대체로 잘 지켜져졌습니다. 목적격 조사만 해도 체언의 끝소리에 따라 '룰'과 '울'이 교체되어 나타났는데, 이 조사들도 체언의 끝 소리가 양성모음인지, 음성모음인지에 따라 다시 '를' 과 '을'로 교체되어 나타납니다. 주제(대조)의 의미를 갖는 보조사 '은/는'도 이와 마찬가지로 양성 모음 뒤에서는 '운/눈', 음성 모음 뒤에서는 '은/는'으로 달리 실현되었지요.

옷, 물(물), 부텨(부처<u>)</u> 뚤(딸)

이 네 단어가 목적격 조사나 주제(대조)의 보조사와 결합할 때 각각 어떻게 나타날지 판단해 볼까요?

	옷	무	부텨	ᄯ ≟
a	오술,	므를,	부텨를,	ᄯ 를,
	오순	므른	부텨는	ᄯᄛ
Ъ	오술,	므 글,	부텨룰,	ᄯ를,
	오순	므룬	부텨눈	ᄯ른
©	오술,	의 이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부텨를,	또 O 는 는,
	오순	물은	부텨는	뜰 C
(d)	오슬,	무슬,	부텨룰,	뚤을,
w	오슨	물은	부텨눈	뚤은
e	오슬,	<u>ㅁ를</u> ,	부텨를,	ᄯ를,
	오슨	므른	부텨는	ᄯ른

1 a

② (b)

③ ©

(4) (d)

(5) (e)



###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海東(해동)六龍(육룡)·이<u>〇 · 루·샤</u>:일:마다天福(천복)·이 시·니古聖(고성)·이同符(동부)· 호시·니

- <용비어천가 제1장>

시·미기·픈·므·른· フ 민·래아·니**②<u>그·출·씨</u>**:내·히이·러바·루· 래**③ 가**노·니

- <용비어천가 제2장>

[현대어 풀이] 해동의 여섯 용이 나시어, 일마다 하늘의 복이시니 옛날의 성인과 꼭 들어맞으시니,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움직이므로, 꽃 좋고 열매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치므로, 내가 이루어져 바다에 가느니.

# **13.** 중세 국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u>은 것은?

- ① ① : 주체인 '육룡'을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② ①: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휘가 사용되었다.
- ③ ② : 받침 위치에 8개 자음만이 오는 규칙이 지켜졌다.
- ④ ② :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⑤ ②: 현대 국어와 달리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가 사용되었다.

# 14. 중세 국어 체언 중에는 H: Z과 같이 '모/무, 느'로 끝나는 체언이 조사와 결합하면서 형태가 변하는 경우가 있었다. 〈보기〉를 참고하여 다음의 (1)~(3)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보기>		
체언의 형태	실현 양상	
<b>단독형</b> 나모		
자음으로 시작하는	ווחר(ווח. ר)	
조사와 결합됨	나모도(나모+-도)	
모음으로 시작하는	남군(나모+-운)	
조사와 결합됨	급 한(역포 <sup>+-</sup> 한 <i>)</i>	

중세 국어	현대 국어
(1) (구무 + -의)	구멍의
(2) (구무 + -마다)	구멍마다
(3) (녀느(他) + -을)	다른 사람을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세종어제훈민정음(世宗御製訓民正音)

世·솅宗종御·엉퇮·졩訓·훈民민正·졍音름

①<u>나·랏:말쓰미</u>中튱國·귁·에달·아文문字·쭝·와·로·서르스 뭇·디아·니훌·씨·이런젼·추·로어·린<u>〇百·빅姓·셩·이</u>@<u>니르· 고·져(○홍·배이·셔·도</u>무·춤:내제(<u>⑤) 쁘·들</u>시·러펴·디:몯홍·노· 미하·니·라

·내·이·물 :어엿·비너·겨·새·로·스·물여·듧字·중·물 밍·フ노·니:사룸:마·다:히·뼈:수·비니·겨·날·로·뿌·메便뼌安 안·킈호·고·져烹@뜻론·미니·라

- <월인석보> 권 제1, 세조 5년(1459)

### (나)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u>◎海東(해동)</u>六龍(<u>육룡)·이</u> └ 른·샤:일:마다天福(천복)·이 시·니古聖(고성)·이同符(동부)· 호시·니

<제1장>

불·휘기·픈남·건부른·매아·니:뮐·씨곶:됴·코여·름·하노·니: 시·미기·픈·므·른·フ모·래아·니그·출·씨ⓒ<u>:내·히이·러바·른·</u> 래·가노·니

<제2장>

- <용비어천가>, 세종 29년(1447)



### 15.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러 형태의 부사격 조사가 사용되었다.
- ② (나)에서 (가)로 오면서 띄어쓰기가 계속 생기고 있다.
- ③ (나)에서 (가)로 오면서 성조는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인다.
- ④ (가)보다 (나)에서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이 더욱 잘 드러난다.
- ⑤ (가)와 (나) 모두 '·'가 두 번째 음절에서 '一'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 **16.** (가)의 ⓐ가 현대 국어로 오면서 겪은 변화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 ① 아니홀·씨
- ② ·노·미
- ③ 밍·フ노·니
- ④ ·날·로
- ⑤ 너·겨

### 다음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이 들어있지 않 은 것은?

<보기>

문장 안에서,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 뒤에 붙어 주어의 자격을 가지게 하는 격 조사.

- $\bigcirc \bigcirc$
- 20
- ③ □
- 4 2
- (5) (a)

### **18.** <보기>의 내용이 적용되지 <u>않은</u> 것은?

<보기>

세종 당시의 현실적인 우리의 한자음을 중국의 한자 원음에 가깝도록 고친 것.

세종, 세조 때만 사용되고, 세조 이후 (1485년경) 소멸 됨.

- ① 國·귁
- ② 文문
- ③ 字.芬
- (4) 便贈
- ⑤ 安한

# **19.** (가)에 나타난 단어들이 현대 국어로 어떤 의미인 지 적어 보았다.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중세 국어	현대 국어에서의 의미
a	<무·디	통하지
Ъ	젼·ᅕ·로	까닭으로
©	:ૄं 00-	~로 인하여
(d)	니·겨	익혀
e	달·아	달라

- ① a
- ② **b**
- 3 C
- (4) (d)
- (5) (e)

# **20.** (가)의 ⑤에 나타나는 중세 국어의 특징 <u>세 가지</u>에 대해 아래의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 (1) ⑤에 나타나는 중세 국어의 특징에 대해 하나의 문장으로 서술하되, 3가지의 내용을 포함할 것.
- (2) 문장 구성 또는 내용이 어법에 맞게 적을 것.

### 21. (나)의 ⓒ를 현대 국어로 서술하시오.

# **22.** (가)의 에 들어갈 내용을 추측해 보았다.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자 '御'가 사용된다.
- ② 훈민정음 간행 당시 '위'라고 적었다.
- ③ \_\_\_\_\_ 안의 글자 모두 거성임을 알리는 방점이 찍혀 있다.
- ④ 답지 ②에서 사용한 글자 다음에 훈민정음으로 '하'를 쓴다.
- ⑤ 답지 ④에서 사용한 글자 다음에 중세 국어의 특징에 따라 '여'를 쓴다.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海東(해동)六龍(육룡)·이노른·샤:일:마다天福(천복)·이시· 니古聖(고성)·이同符(동부)· 호시·니

<제1장>

④불·휘기·픈남·군부른·매아니:뮐·씨곶:됴·코여·름·하노·니 ⑤시·미기·픈·므·른ⓒ·フ모·래아·니그·출·씨◎:내·히이·러 바·론·래·가노·니

<제2장>

- 세종 29년(1447), 「용비어천가」 -

### **23.** 윗글에서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 ① 주격 조사가 사용되었다.
- ①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사용되었다.
- ⑤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② 글자의 왼쪽에 방점을 찍어 높은 소리를 나타낼 수 있었다.

	<b>Ø</b>	9	9	@	•
(a)	곶	바·흑·래	그·출·씨	:일:마다	·이시·니
Ъ	:시 · 미	·부른매	·뮐·씨	·호시·니	노른·샤
©	남·군	·부른매	됴·코	·이시·니	노른·샤
<b>@</b>	불·휘	부른매	그·츨·씨	:일:마다	·이시·니
e	六龍 (육룡)·이	바·흑·래	:뮐·씨	·하누·니	노른·샤

① a

② (b)

3 C

4 d

(5) (e)

# **24.** 윗글에 쓰인 낱말들이 현대 국어에서 달라진 점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중세 국어	현대 국어	달라진 점
9	古聖 (고성)·이	옛 성인과	비교 부사격 조사 '이'가 '와/과'로 바뀜
0	기·픈	깊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 어 적기가 널리 쓰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끊어적기 가 보편적임
©	:됴·코	좋고	'c'이 'l' 계열 모음 앞에서 '자'으로 변하는 구개음화가 일어났으며, 단모음화의 영향으로 '꼬'가
@	·フ모·래	가뭄에	'·'가 소실되어 'ㅏ'로 바 뀌었고, 원순 모음화가 혼 란을 겪어 '애'가 '에'로 바뀜
(1)	:내·히	내가	':내'가 조사와 결합될 때에 드러나는 'ㅎ'이 현 대 국어 '내'에는 드러나 지 않음

 $\bigcirc$ 

2 (

③ □

4) 🖹

(5) (a)

# **25.** 윗글에 쓰인 낱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 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u>보</u>기>

- ㄱ. '해동'은 발해의 동쪽이라는 뜻으로 중국을 의미한다.
- L. '육룡'은 여섯 용이라는 뜻으로 세종의 여섯 조상들을 의미한다.
- C. '남+군'은 '남¬+는'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나모'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하여 '¬'이 덧생긴 것이다.
- 리. '곶'은 종성부용초성이 사용되었다.
- ㅁ. '여름'은 현대어 '여름(夏)'과 의미가 같다.

① 7, ∟

② ∟, ≥

③ 7, ∟, ⊏

④ ∟, ⊇, □

⑤ □ □



### 26. 윗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 ㈜를 현대어로 풀이하시오. (단, 비유하는 내용은 쓰지 말고, 현대어로 풀이할 것)
- (2) ①, ②, ②이 비유하는 내용을 각각 구체적으로 서술하 시오.

### 2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선 시대에 궁중에서 연주되었던 악장 문학의 대표작이다.
- ② 훈민정음의 실용성을 시험하기 위해 창작된 한글로 기록된 최초의 작품이다.
- ③ <2장>은 한자어 없이 순우리말로 되어 있으며, 1절과 2 절이 서로 대구를 이루고 있다.
- ④ 목적성이 강한 작품으로서 왕조의 창업을 송축하고 왕 권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창작되었다.
- ⑤ <1장>과 <2장>은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배경지식을 통하여 보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 정답 및 해설

#### 1) [정답] ①

[해설] 구개음화는 'ㄷ', 'ㅌ'이 'ㅣ' 계열 모음 앞에서 구개 음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ᄉ뭇디'를 'ᄉ뭇지' 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아 15세기에 구개음화 현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정당] ③

[해설] 동국정운식 한자어 표기는 훈민정음의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갖추어서 표기하는 특징(②), 중국 원음에 가깝도록 한자음을 표기하는 특징(①, ④, ⑤)이 있다. ②는 원래 종성이 없는 글자에 형식 종성인 'o'을 사용하였고, ①, ④, ⑤의 표기가 현재의 발음과 같지 않은 것은 당시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 3) [정답] ②

[해설] '고성이'의 '이'는 주격 조사가 아니라 비교 부사격 조사이다. ① '노른샤'(눌+우시+아)의 '샤'는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이다. ③ '불휘'가 'ㅣ' 모음으로 끝나므로 주격 조사가 Ø(영형태)로 실현되었다. ④ '남군' (남ㄱ+운)은 앞말이 양성 모음이므로 양성 모음인 '운'이 쓰였으며, '므른'(물+은)은 앞말이 음성 모음 '一'이므로 음성 모음인 '一'가 쓰였다. 이를 통해 모음조화가잘 지켜졌음을 알 수 있다. ⑤ '뮐씨'는 '뮈-+-ㄹ씨'로 '-ㄹ씨'는 이유를 나타내는 어미이다.

### 4) [정답] ②

[해설] (가)에 '나랏말쌋미'에 사용된 주격 조사는 '이'이다. '말씀'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하여 이어적기한 것으로, 주격 조사 '이'는 현대 국어에서도 쓰인다. ① 'ㆍ'를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모음이다. ③ 'ᄉ'이 관형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④ '말싹미'는 '말씀+이'로 종성 'ㅁ'을 뒷말의 초성에 옮겨 적는 연철 표기가 적용되었다. ⑤ '말씀'은 일반적인 말을 의미하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자신의 말을 낮추거나 상대방의 말을 높이는 의미로 사용되므로 의미가 축소된 어휘로 볼 수 있다.

### 5) [정답] ②

[해설] '홇배'에는 주격 조사가 'ㅣ'의 형태로 실현되었다. '바'가 'ㅣ'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이므로 뒤에 주격 조사 'ㅣ'가 결합하였다. ① 현대국어에서는 비교 부사격 조사로 '와/과'를 사용한다. '에'는 비교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③ '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어엿비'는 불쌍히라는 의미에서 '어여쁘게. 예쁘게'라는 의미로 이동한 어휘이다. ⑤ '니겨'는 현대국어에서 '익혀'이다. 이를 통해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6) [정답] ④

[해설] '플(풀)'과 '눉므를(눈물을)'에서 순음 'ㅁ', 'ㅍ'의 뒤에 '구'가 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순 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순 모음화는 입술소리 'ㅁ, ㅂ, ㅍ' 뒤에서 '一'가 '구'로 바뀌는 현상이다. ① 음절의 초성에 두 개 이상의 자음의 연속체가 온 것을 어두 자음군이라고 한다. ② (나)의 'ᆞ, △'과 '씨' 등의 어두 자음군은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③ '도룰'은 '둘'에 목적격 조사 '울'이 결합한 것으로, 모음 조화가 적용된 것이다. ⑤ 'ㅣ' 계열 모음 앞에 오 는 'ㄷ, ㅌ'이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을 구개음화라 고 하는데. '이긔디'는 현대 국어의 '이기지'라는 뜻으 로, '이기다'의 옛말 '이긔다'의 어간 '이긔-'에 '-디'가 결합한 것으로,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

#### 7) [정답] ④

[해설] '보미'는 '봄'과 '이'가 결합한 것으로, '이'는 관형격조사가 아니라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성 안을 보니 풀과 나무뿐이라는 의미이다. ① '남ㄱ'과 '나모'는모두 '나무'를 뜻한다. ③ '내히'는 '내ㅎ+ㅣ', '뫼콰'는 '뫼ㅎ+과'의 결합으로, '내'와 '뫼'는 ㅎ 종성 체언이다. ⑤ '시미', '새', '봉화ㅣ'는 모두 주어이다. '시미'는 '심+이'로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한 것이고, '새'는 '새+Ø'로, 'ㅣ'모음으로 끝난 체언뒤에 주격조사가 표시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봉화ㅣ'는 '봉화ㅏ'로, 'ㅣ'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주격조사 'ㅣ'가 결합한 것이다.

#### 8) [정답] ⑤

[해설] '달이 밝아서 임이 오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달에게 임 계신 데 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임 계신 데 명휘를 빌리려문 나도 보게'에서 임이 계신 곳에 달빛을 비추어 밝혀 임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말로,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과 임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9) [정답] ①

[해설] 시적 화자는 <보기>의 '한 병에 얻고져'로 보아 강촌에 내려와 많은 병에 약을 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나)에서 세속적 부귀를 추구하지 않았다. (나)는 두보가아내와 자식을 만나러 갔다가 안녹산의 군대에 잡혔을 당시 노래한 시로, 전쟁으로 인한 혈육, 고향에 대한그리움을 담고 있다. ② (나)에서 화자는 가족을 만나지못하는 슬픔을 노래하고 있으나, <보기>에서 아내는 장기판을, 아들은 낚싯대를 만들고 있다. ③ '져구맛 모미이 밧긔 다시 므스글 구후리오'에서 자연에서 사는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난다. ④ (나)는 '봄', <보기>에는 '여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난다. (나)는 풀과 나무뿐인 성 안을, <보기>는 제비와 갈매기, 아내와 아들의모습을 제시하여 평화로운 강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10) [정답] ⑤

- [해설] ⑤는 '입술과 혀와 어금니와 이가 다 좋으며'라는 의 미로, '엄과'의 '과'는 부사격 조사가 아니라 접속 조사 이다.
- 11) [정답] 나는 한때의 재미로 사용하는 표현일 뿐 한글 자체를 훼손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가상공간의 신조어가 대중 매체에서 사용되는 것에 찬성한다.
- [해설] <보기>의 글의 내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 나는 줄임말과 같은 신조어는 경제적이고 재미를 추구하는 표현 방식이라는 점에서, 가상공간의 신조어가 대중 매체에서 사용되는 것에 찬성한다. / 나는 예능뿐 아니라 뉴스에서도 신조어가 사용되어한글 파괴현상이 심각해진다는 점에서, 가상공간의 신조어가 대중 매체에서 사용되는 것에 반대한다. / 나는 방송법 제6조 8항을 근거로 가상공간에서의 신조어가





대중 매체에서도 사용되는 것에 반대한다.

#### 12) [정답] ①

[해설] 앞의 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울/운'(앞의 체언이 양성 모음일 경우), '을/은'(앞의 체언이 음성 모음일 경우)이 결합한다. 앞의 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룰/눈'(앞의 체 언이 양성 모음일 경우), '를/는'(앞의 체언이 음성 모 음일 경우)가 결합한다. / '옷'은 양성모음이며 자음으로 끝나므로 '울', '운'이 붙어야 한다. '물'은 음성모음 이며 자음으로 끝나므로 '을', '은'이 붙어야 한다. '부 텨'는 음성모음이며 모음으로 끝나므로 '를', '는'이 붙 어야 한다. '출'은 양성모음이며 자음으로 끝나므로 ' 호', '운'이 붙어야 한다.

#### 13) [정답] ③

[해설] '곶'은 '꽃'을 의미하며 '곳'이 아니라 '곶'으로 표기하여 8종성법을 따르지 않았다. 8종성법은 받침을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옛이응)'의 여덟 자음으로 적도록 한 것이다. ① 문장의 주어인 '육룡'을 높이기 위해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샤-'가 사용되었다. ② '위다'는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단어이다. ④ '-ㄹ씨'는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그츨씨'는 '그치므로'이다. ⑤ '-노-'는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다.

#### 14) [정답] (1) 굼긔 (2) 구무마다 (3) 년글

[해설] (1)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되어 'ㄱ'이 결합되어 형태가 변하였다. (2)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될 때 체언의 형태가 변하지 않았다. (3)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되어 'ㄱ'이 결합되어 형태가 변화하였다.

### 15) [정답] ①

[해설] (가)의 '등귁에'에서 부사격 조사로 '에'가 사용되었고, (나)의 '부른매, フ무래, 바른래'에서 부사격 조사 '애'가 사용되었고, '고성이'에서 비교 부사격 조사로 '이'가 사용되었다.

### 16) [정답] ⑤

[해설] @ '니르고져'는 두음 법칙이 일어나 현대 국어에서 '이르고자'로 바뀌었다. '너겨'도 두음 법칙이 일어나 현대 국어에서 '여겨'로 바뀌었다.

### 17) [정답] ④

[해설] <보기>는 주격 조사에 대한 설명이다. @에서 '이니라'는 주격 조사가 아니라 서술격 조사이다.

### 18) [정답] ②

[해설] <보기>는 우리의 한자음을 중국의 한자 원음에 가깝 도록 표기하도록 하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 대한 설명이다. '文문'은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가 아니다.

### 19) [정답] ③

- [해설]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라는 의미로, ':히·뼈'는 현대 국어에서는 '하여금'의 의미이다.
- 20) [정답] 어두자음군이 사용되었으며, 모음조화가 철저하 게 지켜졌고, 이어적기를 했다.
- [해설] '쁘들'에서는 어두자음군 'ㅃ'가 사용되었고, '쁟'의 모음이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목적격 조사 '을'이 사용 되었고, '쁟'과 '을'이 결합하여 소리나는 대로 이어적기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3조에 의한 표시

제작연월일: 2023-09-06 2) 제작자: 교육지대(취)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하였다.

#### 21) [정답] 내가 이루어져 바다에 가느니

[해설] ':내'히'는 '내' 이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형태로 '내가'라고 해석하며, '바·른·래'는 '바를'에 부사격 조사 '애'가 결합한 형태로 '바다에'로 해석할 수 있다.

#### 22) [정답] ③

[해설] (가)의 에는 '爲·윙·호·야'가 들어가야 한다. 글 자 왼쪽에 모두 점 1개가 찍혀 있으므로 거성임을 알 수 있다.

#### 23) [정답] ②

[해설] ② '시미'는 샘을 뜻하는 '심'의 자음 뒤에 주격 조사 '이'가 합쳐진 말이다. ④ '부른매'는 '부룸'과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애'가 합쳐졌다. ④ '뭘씨'는 '위 다'의 어간에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 어미 '-리 씨'가 결합되었다. ④ 왼쪽에 방점을 찍어 성조를 표기 했다. ④ '누른샤'는 '눌+우시+아'로, 뒤 음절이 모음으 로 시작하여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샤-'가 사용되었 다.

### 24) [정답] ④

[해설] 'フ무래'는 'フ물'에 부사격 조사 '애'가 결합되어 이어적기를 한 것으로 현대 국어에서는 '가뭄에'로 표기한다. 이는 양순음 다음에 비원순 모음이 원순 모음으로 바뀌는 원순 모음화와 무관하다.

#### 25) [정답] ②

- [해설] ㄴ. '육룡'은 조선 창업의 주역인 세종의 직계 여섯 조상을 용에 비유한 표현이다. ㄹ. 종성부용초성은 종성은 새로 만들지 않고 초성으로 쓰는 글자를 다시 쓴다는 종성의 제자 원리로, '곶'은 초성에서 쓰이는 'ㅈ'을 그대로 종성에 사용했다. / ㄱ. '해동'은 발해의 동쪽에 있는 예전의 '우리나라'를 일컫는 말이다. ㄷ. '남고'은 '남ㄱ(나모)'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운'이 결합한 것으로 'ㄱ 종성 체언'이 사용된 것이다. ㅁ. '여름'은 '열매'라는 뜻이다. 현대 국어에서 계절을 이르는 말인 '여름'을 뜻하는 중세 국어 어휘는 '녀름'이다.
- 26) [정답] (1)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움직이므로, 꽃 좋고 열매 많으니 (2) ⑦ 유서가 깊은 나라는 ⑥ 국 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일이 없이 ⑥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 [해설] 뿌리가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에 조선 왕조를 비유하고 있다.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꽃과 열매를 결실로 맺듯, 샘의 물이 가뭄에도 그치지 않고 바다에 이르듯 조선 왕조가 번영을 계속할 것을 기원하고 있다.

### 27) [정답] ⑤

[해설] <제1장>과 <제2장>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자연물을 통해서 나타낸 것으로, 배경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제125장> 등 고사를 활용한 부분은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된다.



